



# 보일러 동파방지, 이렇게 막자!

이번 겨울 유난히 추운 날씨로 인해 보일러 배관 동파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.

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방순환배관과 온수순환배관을 분리해 예방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. 난방순환과 온수순환은 별개의 배관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대책이 필요하다. 난방순환에서 동파를 방지하려면 단지 보일러에 전원을 켜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며, 온수순환은 온수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어주면 손쉽게 예방할 수 있다.

## 1. 난방순환배관 동파방지

집을 비우실 때, 보일러 전원을 꼭 켜 두세요.

외출이나 장기간 집을 비울때 보일러 전원은 꼭 켜 둔다. 대신 조작버튼에서 '외출'모드를 선택해야 동파방지 외 불필요한 가스비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. '외출'모드를 사용할 경우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동파방지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한다. '외출'모드를 사용하면 공급받는 물의 온도(대기 온도와 틀림)가 6~10℃면 순환펌프만 작동하며, 6℃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만 버너에 불이 붙게 돼 있다. 즉 동파될 정도의 추위가 아니라면 보일러는 작동치 않으며 추가적인 가스비나 전기료는 발생하지 않는다.

## 2. 온수순환배관 동파방지

강추위 때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는다.

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는 한 겨울 중에도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새벽녘에 동파 사고가 급증한다. 보일러를 1번처럼 작동했을 경우, 난방순환배관에는

동파방지가 가능하나 온수사용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온수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온수꼭지에서 물이 푹푹 떨어질 정도로 약하게 트는 게 중요하다.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.

## 3. 배관에 보온재를 감싸 준다.

추운 날씨에 배관이 얼어붙지 않도록 보온재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. 특히, 외부로 노출된 배관은 보온재로 꼭 감싸줘야 동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. 펠트, 콜크, 기포성 수지 등 전문 배관 보온재를 구입해 감싸주는 것도 좋고, 손쉽게는 현 옷가지 등으로 대신해도 어느 정도의 추위까지는 견딜 수 있다.

## 4. 그래도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었다면

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(온수는 나오지 않으나 난방이 되는 경우, 난방이 되지 않으면서 02번 에러[물보충요망]가 표시되는 경우 모두 해당) 이는 보일러 밑의 직수배관이나 온수배관이 얼었다는 표시다.

이 때는 보일러 밑에 있는 오른쪽 첫번째와 두번째 배관을 온수가 나올 때까지 따뜻한 물이나 온열기로 녹여주면 된다.

위와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되풀이 했는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동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인근 설비업체에 문의하는 게 좋다.

자료제공:경동보일러 (서비스 상담 및 신청 1588-1144)